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8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영국 자치령 지브롤터,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요구 거부·방면
 - 8.18 AP통신은 지브롤터 당국이 EU 제재 위반혐의로 억류된(7.4) 이란 유조선 '그레이스 1호'와 관련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E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압류요구를 묵살하고 출항을 허가했다고 보도
- 터키, 반군 협조 혐의로 쿠르드계 선출직 시장 3명 면직 조치
 - 8.19 터키정부는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남동부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지난 3월에 선출된 시장 3명을 쿠르드노동자당(PKK)을 도운 혐의로 면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

미주

- 美, 총기난사 사고를 계기로 대용량 탄알집(탄창) 규제 주장 확산
 - 8.18 WP는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빈발하면서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'대용량 탄알집을 규제해야 한다'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- 美·탈레반 평화협정, ISIS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
 - 8.20 WP는 美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, 탈레반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ISIS가 탈레반의 일부 강경파를 끌어들이 조직이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
 - * 美·UN은 아프간에서 ISIS 2,500~5,000명 및 탈레반 약 8만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분석

아 · 태평양

- 뉴질랜드 및 美 텍사스주 총기난사 사건, 환경주의 사상 탓으로 분석
 - 8.18 WP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(19.3.15)와 美 텍사스주 엘파소(19.8.4)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이 이전의 증오범죄 패턴들과는 달리 인구 과밀 상태와 환경 파괴에 대한 또다른 강박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백인우월주의 성향을 넘어 환경주의(에코파시즘)*를 이념적 가치로 두고 있다고 분석
 - * ‘환경 및 동물권 보호’라는 미명하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간 개인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상

중 동

- ISIS, 시리아·이라크에서 부활 조짐
 - 8.19 NYT는 美·이라크 군 관계자들을 인용, △ 이라크·시리아에 남아있는 ISIS 조직원이 18,000명에 달하고, △ 4억달러(약 4,800억원)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, △ 아프간에서도 약 2,500~4,000명의 조직원이 게릴라식 공격을 감행하는 등 뚜렷한 재건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
- 시리아 반군, 정부군 공세에 거점 도시에서 철수
 - 8.20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정부군의 집중공격으로 이들립 남부의 칸세이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‘하야트타흐리르알샴’(HTS)을 포함한 반군연합이 철수했으며, 반군은 병력을 증원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
 - * 알레포 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반군 일파인 ‘시리아국민군’이 지원병력 파견 예정

터키, 쿠르드족 결혼식장 폭탄테러

- '16.8.22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인 가지안테프州*에서 쿠르드족 결혼식장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57명이 사망하고, 66명이 부상
 - * 同지역은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과 테러 조직의 유입으로 테러 위험이 고조
- 同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었으나, 당시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ISIS가 견제함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공격으로 추정
 - 터키가 시리아 내전 및 ISIS 격퇴전에 개입하자 '15년부터 테러 급증
 - * '16.6.28 이스탄불에 위치한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IS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 및 자살폭탄 테러(사망 45명, 부상 239명)
 - 외신들은 同공격에 대해 「이을드름」 터키 총리가 “시리아 내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발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
- 테러 직후, 「에르도안」 터키 대통령은 “同공격의 의도는 아랍, 쿠르드, 터키인 사이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, 종족·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”이라면서 “터키는 이러한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

< 시리아 내전 >

- (발단) '11.3월 중동 민주화요구 時流에 편승, 시리아 내 反정부 시위로 촉발
- (전개) ‘시리아 정부군 對 반군’을 넘어 ‘시아파 對 수니파’, ‘러시아 對 서방’ 등 복합적인 국제대리전 양상으로 확대

반 군		정 부 군	
수니파	사우디, 카타르, 터키	시아파	이란, 레바논 헤즈볼라
미국, 나토	시리아 내 러시아 영향력 견제	러시아	중앙아시아 영향력 유지
터 키	ISIS 격퇴, 쿠르드족의 단결 견제	이 란	시아파 대표국가로 중동지역內 세력권 유지

※ ISIS, 시리아 내전의 혼란 속에 시리아 남동부 등을 확보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 선언('14.6월)
 ⇨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군이 결성되어 시리아內 대대적인 ISIS 격퇴작전 전개('15.10월~)